

내달 주52시간 근로제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정말 고민되네’

“공사기간 맞추려면 인원 더 뽑아야 하는데...”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지역건설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다.

공사기간을 지켜야 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의 하청을 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영세건설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평일 근무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 연장

품질저하·안전사고·공기지역 부작용 우려
근로단축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 시급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사고, 공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해외건

설공사 수주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특히 하도급 현장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더 많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언제라도 추가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특성에서 사실상 시간상의 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역시 사실상 중소형 건설사에 떠넘겨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 갑을관계의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에 상대로 공사비 추가 요구를 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개정안이 공사비 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하도급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지지 않는 이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일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며 “중소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누문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한양’ 선정

조합원 총회 결정...시공 노하우·재무구조 탄탄

(주)한양이 최근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광주시의 낙후된 구도심 개발을 위해 북구 누문동 일원 10만6,481.7㎡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구도심의 활성화는 물론 민주화의 상징이 된 광주 금남로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며, 향후 관리처분을 거쳐 이주 및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한양 관계자는 “브랜드, 신용도, 사업 제안조건 등이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양은 45년 역사의 1군 건설사로, 차별화된 시공 역량은 물론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으며 ‘수자인’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1973년 창립 이래로 압구정 한양아파트와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17만여 세대를 공급하면서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로 미분양 없는 건설한 기업, 아파트 잘 짓는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다. 한양은 이외에도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의 미래성장사업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미애 기자

광주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하나

준공 5년 이내 신축주택 실거래가 하락
수요자 선호 낮아 작년 정점후 하락세

광주지역 준공 5년 이내 신축 주택 실거래 매매가격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공 5년 이내 주택과 준공 5년 이상의 가격차이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20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 신축의 경우 대단지분기준 ㎡당 2017년 282만원에서 271만원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같은 기간 995만원에서 1,065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지방은 173만원에서 154만원으로 하락했다.

광주는 2013년 219만원, 2014년 224만원, 2015년 227만원, 2016년 252만원, 2017년 257만원으로 상승하다가 올해는 252만원으로 하락했다.

전남은 2013년 85만원, 2014년 61만원으로 하락한 이후 2015년 76만원, 2016년 80만원, 2017년 82만원, 2018년 85만원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남은

광주와 달리 5년 이내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도는 아직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준공 5년 이상 주택 실거래 매매가격 대비 준공 5년 이하 매매가격은 2013년 2.54배, 2014년 2.40배, 2015년 2.13배, 2016년 2.09배, 2017년 1.86배, 2018년 1.82배로 매년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전남은 신축 주택의 인기가 없는 광주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2013년 3.83배에서 2014년 2.79배로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2015년 3.03배로 확대됐다. 하지만 2016년 2.69배로 좁혀진 후 2017년 2.73배, 2018년 2.87배로 다시 확대됐다.

준공 5년 이상 주택 대비 신규 주택의 거래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공급 증가와 아파트 분양시장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은 2012년 이후 매년 7만호 이상의 주택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국토교통부 ‘5월 주택 매매량’

지난해보다 6.6%·13% 각각 증가

양도세 증가 전국 부동산 침체 대조

광주·전남지역 지난달 주택 매매가 증가추세로 전국 주택시장 침체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전국 주택매매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87건과 2,663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6.6%와 13.0% 증가했다. 올 1~5월까지 누계 거래량도 각각 1만4,550건과 1만2,232건으로 11.2%와 4.9%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만1,989건으로 같은 기간 21.3% 줄었다. 이어 연립·다세대(1만4,389건)가

23.0%, 단독다가구 주택(1만1,411건)이 12% 각각 줄었다.

올해 1~5월 아파트 거래량은 24만7,298건으로 8.9% 증가했고, 연립다세대(7만2,488건)는 5.6%, 단독다가구(5만2,582건)으로 5.8% 줄었다.

한편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6만7,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5,463건)보다 20.3% 감소했다. 5년 평균치(9만506건)에 비해서도 25.1% 줄었다.

하지만 올해 1~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37만2,368건으로 전년 동기(35만9,760건)보다 3.5% 소폭 늘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1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 속에서 4월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2대책에서 예고한 양도세 증가 조치가 4월부터 발효되면서 1~3월 상대적으로 활발하던 주택 거래가 4월 이후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 거래량은 3만5,5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5.6% 줄었고 지방은 3만2,735건으로 13.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 거래량 감소 폭이 37.2%로 가장 큰 가운

지역	거래량	전년 동월비
전국	67,789	-20.3%
수도권	35,054	-25.6%
인천	5,102	-20.4%
경기	18,233	-17.2%
지방	32,735	-13.7%
부산	4,209	-41.5%
대구	4,167	35.2%
광주	2,887	6.6%
대전	2,072	-9.5%
울산	958	-36.0%
강원	1,977	-21.4%
충북	2,153	-12.9%
충남	2,511	-1.3%
전북	2,283	-18.7%
전남	2,663	13.0%
경북	2,645	-12.2%
경남	3,116	-28.7%
제주	703	13.0%
세종	391	-8.0%

데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이 줄었지만 대구, 광주, 전남, 제주는 늘었다. /서미애 기자



KOSPI 상장기업 **다에스텍**의 새로운 이름,

다스코 [DASCO]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로운 이름,

세라코 [CERACO]

새롭게 출발하는 **다스코(주)**와 **세라코(주)**는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Total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스코(주)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 061)370-2114, Fax : 061)370-8195
도로안전, 테크플레이트, 단열재, 외장재, 태양광

세라코(주) 전남 나주시 봉황면 농공단지길 134-7
Tel : 061)331-9000, Fax : 061)331-9003
세라믹벽돌, 친환경, 수처리, 도로안전, 테라코타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사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